

『생활의 윤리』에 나타난 이분법적 사고와 자립적 여성상의 정립

최중녀*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자연 친화적 사고방식과 생활의 저력
- III. 부르주아적 허위의식과 윤리적 파탄
- IV. 미래 지향적 가치관과 운명 순응적 가치관의 공존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해방 전 1940년대 초반 작품 이기영의 『생활의 윤리』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이분법적 사고와 자립적 여성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골 태생인 주인공 응주의 자연 친화적인 사고방식은 경제적 자립과 남성을 여성인 자기 세계로 편입시키는 생활력 강한 여성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응주가 사회 변혁의 주동적 인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일제가 요구하는 '제국주의 모성론'에 부합되는 모습은 '전향소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점도 있다. 반면 문명화된 도시의 유복한 가정 태생인 일찌는 부르주아적 허위의식으로 시골을 폄훼하고 멸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찌의 의식은 윤리적 파탄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당대 자본주의의와 상업주의 발호 속에서 부르주아 계층의 허위의식과 윤리적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응주 어머니의 실리적인 미래 지향적 가치관은 응주가

* 경일대학교 교양학과 강사

현실을 극복하고 자립적 여성으로 정립할 수 있는 건인차 역할을 하는 반면, 일찌 어머니의 운명 순응적 가치관은 일찌가 미혼모로 숨어 살게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가 이기영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등장인물들의 사고를 이분화하여 건강한 자립적 여성상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어 : 자연, 문명, 이분적 사고, 자립적 여성

I. 서론

이기영의 『생활의 윤리』는 해방 이전에 나온 장편소설 가운데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이며¹⁾ 1942년 출간된 단행본으로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 분석에 앞서 작품이 창작되던 당대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전향소설로 분류되는 『생활의 윤리』의 특성상 이를 창작하도록 강요한 당대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전향”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고, 당국의 포섭에 동조하여 자신이 가진 기존 사고가 오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향이 꼭 강압적인 조치에 굴복하여 자신의 목표를 상실하는 사고 변환, 즉 실패 혹은 패배의 의미를 가진 사고의 변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효율적으로 전향을 받아들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향소설의 “전향의 문제는 ‘작품 행동’을 감행한 작가의 세계와 사상적 심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며,

1) 이기영의 해방 전 마지막 작품은 1944년 만주개척소설인 『처녀지』이지만 『생활의 윤리』 또한 같은 해 성문당을 통해서 재출간되었다. 이런 이유로 『생활의 윤리』를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 보고자 한다.

2) 『생활의 윤리』는 단행본으로 초판은 1942년 대동출판사와 1944년 성문당에서 두 번 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문당본을 참조하여 본문 인용 시 괄호 안에 쪽 수만 기입하였다.

이후에 전개되는 자신의 창작행위에 직결되는 한 계기를 마련한다.”³⁾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기영의 『생활의 윤리』 작품이 출판된 1942년은 전시체제로 인한 일제의 과시즘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고 작가들에 대한 탄압은 한층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까지는 1935년 카프 해체,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령, 1941년 조선사상범예비구속령 등으로 카프 출신 작가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이어졌다.⁴⁾ 그 결과 카프 출신 작가들은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기영의 첫 번째 전향소설인 『적막』⁵⁾에서는 과거 사상운동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주인공 명호가 출옥 후 옛 동지들의 변절 등 달라진 세대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고독감, 그리고 이러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주인공 명호의 현실에 대한 현실 극복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제는 현실을 왜곡하고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는 국책문학을 강요⁶⁾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고 기만과 폭력으로 한국 민중을 더욱 노예화시키는 邪道의 문학인 국책문학”⁷⁾이 전반적으로 성행하게 된다. 이에 이기영은 차선택으

3) 이상갑, 『한국근대문학과 전향문학』, 깊은 샘, 1995, p.222.

4) 당시로서는 치안유지법 위반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되는 경우 ‘전향자’로 공인되는 것이 일반적 감각이었다.(김동환, 『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11.) 이기영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5년 12월 2년 징역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5) 이기영, 『적막』, 『조광』, 1936, 7.

6) 1932년 일제는 만주 건국으로 만주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책문학의 하나로 농민문학, 생산문학, 대륙개척문학을 강조한다. 이에 1938년 전후하여 이기영을 비롯하여 이태준, 채만식, 이무영, 이석훈, 정비석, 정인택 등이 만주시찰단의 일원으로 만주를 시찰하고 이를 작품화하였다. 우종인, 『이기영 장편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78.

7) 이주형, 『일제 강점시대 말기 소설의 현실대응 양상』, 『국어교육연구』 24집, 국어교육학회, 1991, p.10.

로 작가의 문제의식이 전혀 도출되지 않으면서 현실 도피 성향을 보이는 통속적인 연애물인 『생활의 윤리』를 1942년 출판하기에 이른다. 즉, 국책의 홍보계몽이라는 체제 권력의 주문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그때까지 해오던 자기 나름의 순수한 계몽담론을 편승시켜 재문맥화하는 방식 이데텐 위장협력 글쓰기⁸⁾를 하게 된 것이다.

『생활의 윤리』는 일제의 전시체제로 인해 식민지 조선에 강화된 수탈과 억압에 대한 탈출구 일환으로 체제의 주장을 표방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⁹⁾ 다시 말해 “사회에서 가정으로, 사회인에서 생활인으로 귀환”¹⁰⁾이라는 모토를 중심으로 현실을 총체적이고 비판적으로 그리기보다 한 개인의 사적인 일상 차원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리즘 작가로서 자의식이 강했던 이기영은 당대 현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¹²⁾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합리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계몽담론이 작품의 주조를 이루고 있”¹³⁾다.

본 연구에서는 계몽담론과 더불어 일상을 통해서 잠재된 힘이나 원리를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김한식의 논의를¹⁴⁾ 바탕으로 여성 인물들의 이분법

8) 김홍식, 『일제말기 이기영 문학의 내부망명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7, 2015, p.367. 김재용은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사, 2004, pp.45-46.) 일제말기 문학을 ‘협력과 저항’이라는 양극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 우종인, 같은 논문, p.70.

10) 이상갑, 『1930년대 후반기 창작방법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87.

11) 당시 쓰여진 이기영의 작품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체성 미달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김윤식, 『한국현대현실주의의 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p.40, 참조.

12) 이 작품에서는 시간적 배경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일제의 검열을 회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13) 김홍식, 같은 논문, p.367.

14) 김한식, 『현대 소설과 일상성』, 월인, 2002, p.58.

적 사고와 자립적 여성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주인공이 주체적 여성으로서 생활의 저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자연 친화적 사고방식과 생활의 저력

석응주는 강원도 살무지라는 두메산골 가난한 농부의 딸이다. 선교부인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그러나 문명화된 화려한 도시 서울과 두메산골 살무지의 열악한 환경·음식, 고된 노동 등을 비교하며 걸으며 보기에 화려한 도시인 서울보다 살무지에 애착을 느낀다.

그러나 응주는 날이 갈수록 고향에 대한 애착이 느껴진다. <…> 사실 대도회가 시가지로서의 변화하고 화려한 품을 자랑한다면 시골은 그것이 없는 대신 전원(田園)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미(自然美)의 그윽한 정취(情趣)가 선경같이 보여진다.

더욱 그것은 위생적으로 볼때였다. 도회지는 외관상은 화려하고 문화의 중심이 된것만큼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반면에 공기가 좋지못한속에서 건강을 해하기가 쉬웠다. 그래서 촌사람들은 먹는 것이 부실하고 일은 서울사람보다 더 하건만 만난 것을 먹으며 노는 그들보다 오히려 건강한몸을 가졌다. 그런점으로 본다면 건강은 반드시 미식(美食)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소박한 채식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골이 보전에 적당한 것 같다.<…> 정다운 고향산천을 배경으로하여 고요한 생활에 깃드려보니, 피로하든 신경이 산뜻해지고, 흐리든 머리가 금시로 깨끗해지는 듯 기분이 일신하였다.(pp.58-59)

위의 인용문은 응주가 화려한 서울보다 자신의 고향산천인 시골의 자연을 더 사랑하고,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순수한 감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냥을 가는 일찌 아버지 일행을 따라 산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힘든 산행에도 불구하고 눈 쌓인 산을 “눈바다”로 감탄하며 바라본다. “태양이 설국의 산악을 찬란히 빛이는 것을 더 한층 황홀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응주가 자연의 정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사고방식은 “여행을 온 것처럼 유쾌한 기분”으로 이어진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 “괴로운 만큼” “모든 산이 내 발밑에 굴복”하는 성취감과 함께 “모험을 처음 해보는 것처럼” “장쾌한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이렇듯 응주에게서 시골의 자연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는 동시에 어려움에 도전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응주는 “아무도 안 올라가 본 산을 혼자 올라가 보았으면” 하고 공상을 한다. 응주의 이러한 의식은 앞으로 응주가 당대 여성은 시도하지 않았던 자립적 여성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서울 사람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일찌가 시골 농부인 응주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험수룩한 땀나무꾼”이라고 무시하는 말을 할까 봐 응주는 걱정한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가 아니라 “턱없이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를 하는 일찌에게 실망하여 우정이 깨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다. 응주가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자신의 아버지와 시골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당당한 여성이라는 사실은 다음 인용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응주는 결코 남한테 질생각은 없었다. 함울며 잘못이 없이는 누구한테고

머리를 굽히고 싶지않은 성미일까부냐. 인제 새삼스레 가난한 내집생활을 부끄러워 하는것도 못한 것이 아닌가.그렇다면 산골 생활이거나 나무꾼의 아버지를 두었다고 부끄러워 할 조건도 없다. 왜그러냐하면 남의 불행을 비웃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부끄럼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p.147)

응주는 오히려 시골 생활이나 자신의 아버지를 비웃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응주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존감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 높은 자존감은 시골 사람들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와 자연 친화적인 사고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자연에 둘러싸인 살무지라는 공간은 건강한 시골의 모습 속에 또 다른 모습을 안고 있었다. 다른 아닌 열악한 생활환경과 봉건적 인습이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열악한 생활환경은 응주의 시선에서 적나라하게 포착되고 있다. 응주의 고향은 우편배달부도 며칠에 걸려 오는데 그것도 장꾼 편에 부칠 정도로 두메산골이다. 즉 외부 환경과 거의 차단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급자족의 생활로 “산돼지와 별로 다를것이 없는” 산에서 “쭈셔먹고 산속에만 얹드려” 살고 있는 것이다.

응주의 방안 풍경에서도 궁핍한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흙벽이 울퉁 불퉁 불거지고, 참나무대쪽으로 만든 쪽자리는 새까맣게 때가 케로 앉았다”(p.18). 응주는 살무지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공간임도 불구하고 문명화된 도시 생활 경험을 통해 열악한 생활환경임을 깨닫는다. 아울러 시골의 변화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만이 유일한 길임도 알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가족들을 서울로 이사시킬 계획을 세운다.

뿐만 아니라 살무지는 응주에게 봉건적 인습이 잔존해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응주의 긍정적 사고방식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추구하는 자존감 있는 모습은 시골의 봉건적 인습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힌다. 첫 번째 난관은 아버지의 봉건적·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부자인 병태와의 결혼을 강요받는 것이다. 두 번째 난관은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온갖 간계를 써서 응주를 자기 여자로 만들려는 병태의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다.

여자가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응주가 졸업을 하면 부잣집 아들인 병태의 후처가 될 것을 강요한다.¹⁵⁾ 이를 빌미로 병태에게 돈까지 받는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생한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잘 사는 딸의 덕을 보고자 하는 부모로서의 욕망이 동시에 담겨 있다. 아버지의 봉건적·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한 결혼 강요와는 상관없이 응주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결심한 상태이다. 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생각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모 세대인 아버지가 부잣집과의 혼사로 가난을 해결하려는 남성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면, 자녀 세대인 응주는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년 안에 돈을 모아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살 꿈까지 가지고 있다.

응주가 학교를 다니던 시기의 고등보통학교 여학생은 세 가지 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상급학교의 진학이라면 두 번째는 취직인데 성적이 나쁘면 이것마저 힘들었다. 세 번째는 결혼이었다. 하지만 이는 자유결혼이 아닌 부모에 의한 ‘불합의한 결혼’으로 싫어도 억지로 할

15) 처음엔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부잣집에 시집가기를 원했지만 취업을 통해서 가족을 돌보겠다는 응주의 설득에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응주의 같은 방 친구 갑순이가 부모의 강요에 의해 취업이 아닌 억지 결혼을 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자 쪽 집안의 문벌이 상당하고 재산이 있다는 것이 결혼 성사의 이유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갑순의 의사는 무시되었다.

갑순의 억지 결혼을 보며 응주는 여성으로서의 불리한 삶을 일찍이 깨닫는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백화점에 점원으로 취직을 한다. 응주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행운이지만 “남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여간 부끄럽고 큰 부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는 한편 비록 백화점 일은 힘들지만 자신도 직업을 가지고 독립생활을 한다는 사실에 “자신있는 저력”(p.288)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소비 공간인 백화점을 다니면서 자립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이러한 응주의 의식 변화는 돈을 모아 가족을 서울로 이사를 시키고 책임지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작가는 응주를 부모세대와 달리 능력을 발휘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주체적이고 자립적 생활을 지향하는 여성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응주가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대표적인 방해 요소로 병태라는 인물을 들 수 있다.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가진 병태는 자신을 거부하는 응주를 정복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총동원한다. 응주 아버지에게 돈을 건넌 뒤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려면 그 돈을 당장 갚으라며 응주를 협박한다. 게다가 아버지는 병태의 협박을 방조하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결혼을 강요한다. 돈을 빙자한 정략적 결혼을 모의한 병태의 수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응주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인다. 병태와의 문제는 자신의 세계를 견고히 지키려는 강인한 주체적 의지와 사정을 알게 된 준구가 빌려 준 돈으로 해결하게 된다. 병태의 강제 결혼 시도는 당시 열악한 여성의 위치를 말해

준다. 즉 여성을 물건이나 식량과의 교환가치로 생각하는 남성 권력의 행태와 함께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이 아버지나 남편 등 가부장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응주를 둘러싼 결혼 시도 과정은 식민지 조선의 궁핍 문제와 봉건적 가부장제를 작가가 동시에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주의 자립적인 생활 지향은 연애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응주와 연애 관계를 맺는 인물로는 위에서 언급한 준구를 들 수 있다. 시골 출신의 착실하고 신중한 준구는 일찌의 집에 가정교사로 고용되었다가 일찌 부모님의 암묵적 묵계로 일찌의 결혼 상대자가 된다. 한편 백화점에 취업을 해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응주는 준구와 우연히 만난다. 이를 보게 된 일찌는 둘 사이를 의심하여 오해하고 준구는 일찌네 집에서 나오게 된다. 이후에도 응주와 준구의 우연한 만남이 지속되던 중 같은 하숙집에서 살게 된다. 잦은 만남은 대화로 이어지면서 준구는 응주에게 “특이한 존재”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모친 위독’이란 전보가 시골에서 온다. 급하게 시골로 내려온 응주는 병태와 아버지의 술수에 의한 거짓 전보라는 걸 알게 된다. 사실 아버지는 병태가 준 돈을 응주가 갚겠다고 나섰을 때 딸 결혼에 대한 미련을 버렸지만, 병태는 응주를 차지하기 위한 탐욕스런 마음을 접지 못했다. 때문에 “혼인만 정해준다면 당장이라도 처갓집은 논과 집을 사서 이사를 식히고 생활을 걱정없이 안정해 준다”며 응주 아버지를 설득했던 것이다. 이번 ‘모친 위독’도 병태가 꾸민 간계로 아버지는 응주 어머니인 아내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거짓 전보로 응주를 고향으로 불러들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응주 어머니는 그 길로 달려가 병태에게 감금 당하여 결혼을 협박받던 응주를 데리고 나온다.

여기서 응주 아버지의 의식은 봉건적 가부장제와 함께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논리인 ‘돈’이 현실적 생존의 방식을 지배하고”¹⁶⁾ 있는 시대 상황

을 잘 보여준다. 아버지는 응주를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것은 사실 ‘돈’ 문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돈 많은 병태와의 결혼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딸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온갖 간계를 써서 성사시키려 했지만 딸을 구하려는 어머니의 민첩한 대응으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은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무력해진 남성상과 함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서서히 붕괴돼가는 현실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응주는 예정대로 시골 가족들을 서울로 이사를 시킨다. 그리고 준구를 만나 청혼을 하며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살자고 한다. 가족의 이사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응주가 집 안의 가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응주의 청혼은 남성인 준구의 세계로 편입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의 세계로 편입해 들어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게 의존하는 위치에서 남성보다 우위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응주의 여성으로서 변화된 위상은 하숙집 안주인과 준구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숙집 안주인과 준구는 당시 여성이 가져야 할 처세 철학과 결혼관, 의식의 전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응주가 당차게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본 하숙집 안주인은 준구에게 여성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응주가 병태의 간계를 당차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공부를 해서 똑똑해서이고 둘째,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뻐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자라도 배워야 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뻐심’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여성들의 처세철학을 대변한다. 이렇듯 하숙집 안주인의 목소리를 빌어 응주는 당대 여성들의 처세철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16) 우종인, 같은 논문, p.70.

“혼인은 남녀간 성년이 되어서만 한다는 것이 원칙이 안입니까?<…>그런데 재래의 악습인 조혼은 말할 것두 없으나 그밖에도 결혼의 폐풍이 많지 않습니까? 고대 말숨한바와같이 결맞고 서로 지편을 이해하는 아랑과 마주 도아가자는 그야말로 일심합력이 있지 않으며 결코 그가정이 행복되지 않을것입니다. 재산이나 지위 같은 것은 오히려 둘재 문제겠지요.”(pp.391-392)

위의 인용문은 준구가 하숙집 안주인에게 기존 결혼 제도에 대한 비판과 결혼관을 언급하는 대목이다. 혼인 당사자인 남녀의 일치된 마음이 재산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준구의 주장은 자신이 응주와 혼인하려는 이유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아가 준구는 여성들도 남성들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껏 돈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남성에 의존해서 사는 삶을 탈피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여기서 준구가 추구하는 여성상은 응주로 대표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응주는 “자연미의 그윽한 정취”를 이해할 줄 아는 자연 친화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동시에, 시골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봉건적 인습을 직시하는 이성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도시로 상경하여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으로 우뚝 서 있는 인물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응주가 자립적 인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의 주동적 인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인공 응주라는 인물을 통해 이 작품에 대해 다음 두 가지로 상반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첫째, 응주가 여성으로서 자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전향소설이라는 오명은 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응주라는 인물의 형상화에는 1940

년대 일제가 요구하는 이른바 ‘제국주의 모성론’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응주가 가족을 부양하고 준구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와 살라고 하는 모습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성의 자립성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제국주의 모성론’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일제가 추구하는 체제에 동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일상을 통해서 여성해방, 여성의 자립성 등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고자 노력한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기영은 여성이 자립적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고, 봉건적 가부장제 및 결혼관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어야 하며, 고난과 투쟁할 수 있는 “뱃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여성도 자립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계몽담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부르주아적 허위의식과 윤리적 파탄

일찌는 응주의 친한 학교 친구이다. 서울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유복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암묵적으로 정해준 시골 출신인 가정교사 이준구와 준 약혼 상태이다. 살무지에서 지낸 며칠 동안 일찌는 자신의 의식과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이는 이후 윤리적 파탄으로 까지 이어진다.

일찌의 의식과 성격은 살무지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로 정한 주막의 봉노방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다. 처음으로 두메산골을 접한 일찌는 불결한 봉노방을 “도야지 우린가 싶”어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따라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는 주막집 노파에게 “왜 도배도 못하냐”고 묻는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일찌는 이들이 왜 불결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에 의품을 품기보다 자신이 이런 장소에 왔다는 데에 불만을 표시한다. 즉 시골 사람들의 빈곤한 삶을 이해하려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무산계급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부르주아¹⁷⁾로서의 의식을 보인다.

“난 산보다두 신작노를 짓는게 좋아. 산은 너무 쓸쓸하구……올라가자면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걸 뭐……”

일찌는 자기의 취미와 맞지않는 응주를 실쭉한 듯이 냉소한다.<…>

“난 그래두 싫여……산은 너무 쓸쓸해”(p.174)

사냥을 가는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 준구를 따라 응주와 일찌가 힘든 산행 중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여기서도 일찌의 부르주아 의식을 잘 엿볼 수 있다. 산에 오르는 과정은 힘들고 괴롭지만 유쾌하고 정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응주에게 일찌는 산보다 편한 “신작노”가 좋고 “다리가 아파서” 싫다고 한다. 문명화된 도시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일찌에게 산은 힘들기만 하는 대상이었다. 또한 화려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에 익숙한 그녀로서는 정적이 감도는 산은 쓸쓸한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일찌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응주를 냉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일찌와 응주가 “산”과 “신작노”의 대비처럼 이성적 시각과 감정적 시각, 무산계급 의식과 부르주아 계급 의식 등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둘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다르다. 응주는 “안 올라가본 산을 혼자 올라가보았으면 제일 좋겠다”라며 미래에 대한 도전

17) 일제의 식민정책과 시대변화의 결과로 ‘사회적 잉여’를 소유한 부르주아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져 도덕적 의무마저 사라지고 있었다. 박현호, 『염상섭과 부르주아지』, 한국학연구 39, 2015, p.17, 참조.

정신이 깃든 말을 한다. 하지만 일찌는 이와는 상반된 말을 한다. “난 그보다 두 끝없는 먼길을 동무와 가치 것구싶어…인생은 나그네요, 세상은 여관과 같다하지 않던.”(p.175) 여기서 동무는 남성을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그녀가 개방된 자유연애를 열망함을 알 수 있다. 일찌의 부르주아적인 의식은 힘든 산행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이런테를 어떻게가요, 난 도루 내려갈테야”라고 “징징 우는 소리로 짜증을 내(p.182)”는 철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산을 내려온 일찌는 옆방에서 아버지가 이를 잡으며 준구와 대화하는 걸 듣는다. 시골 출신인 준구가 방안에 이가 있다는 사실에 웃고 만다는 사실에 그를 비판하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응주를 친구라고 사귀어 온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이 이불은 노파의 덮개라고 과히 드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깨롭해서 그는 덮기를 고려했는데 아랫방 요뻐기란 정말 볼 수 없는 때국이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욕찌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준구도 지금 그이불을 덮고 잘까라 생각하니 금방 정나미가 뚝 떨어졌다.<…> 그것은 준구가 다시보여 지기 때문이다. 그가 그런 사람인줄은 정말 몰랐다. 그가 똥보 인줄은 전부터도 알았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신경한 원시인간(原始人間)인줄은 정말 몰랐다.(p.212)

그는 이태까지 응주도 그런 아인줄은 몰랐다. 그의 고향이 시골인줄은 알았으나 이런 산골 무지렁인줄을 몰랐다. (중략) 그의 아버지라는 석침지 꼴을 보면 자기집 행랑아범도 그보다는 선비같고, 문벌이 있을 것 같았다.(중략) 이와같이 생각이 드러난 일찌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는 금시로 자기 지체까지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아이를 여태 동무라고 사귀여온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p.213)

자신은 “과히 드럽지 않”은 이불이지만 “깨름해서 ”덮기를 고려“하고 있는데 준구는 “때국”에 절은 이불을 아무렇지 않게 덮고 자고 있다는 생각에 “무신경한 원시인간”이라며 실망을 한다. 열악한 시골 환경에 대한 불만은 친한 친구인 응주와 응주 아버지에게로 이어진다. 응주와 도시에서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일 때는 동등한 신분이라고 생각했던 일찌는 응주 아버지가 알고 보니 “산꼴 무지렁”이에 “자기집 행랑아범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그러자 자신의 “지체가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친구를 둔 자신까지 부끄러워한다. 응주에 대한 생각은 다시 준구에게 이어져 “응주와 똑 같은 지체를 가진 준구라면…그는 생각만해도 몸씨가 처진다”(p.214). 즉 “원시적인 야만생활을 좋아하는” 준구까지 멸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찌는 이성은 배제되고 감정에 의존하여 시골 사람을 무지렁이라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위계화한다. 이런 이유로 시골의 겉만 보고 시골 출신인 준구를 멸시하고 친한 친구인 응주까지 산꼴 무지렁이로 취급한다. 동등한 신분의 공간인 서울로 돌아와서도 일찌는 “응주를 그런 동무로서 사귀고 싶지 않았다. 미천한 산중사람이라는 신분적 우월감(p.422)”을 느낀다. 여기서 일찌의 부르주아적 허위의식을 잘 엿볼 수 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준구가 백화점에서 응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연유도 물어보지 않고 둘 사이를 오해한다. 이를 계기로 준구는 일찌네 집을 나오게 되고 일찌는 “신경쇠약이 있었는데 늑막염이 생”(p.357)겨 병원에 입원을 한다. 일찌는 사냥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병이 난 것은 사냥을 갔을 때의 무리한 산행과 불결한 잠자리 환경 때문이고, 준구가 사냥에만 몰두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며 준구에게 잘못을 전가한다. 일찌의 책임 전가 의식은 준구가 응주와 교제하게 된 계기도 사냥이 그 시작이라는 오해로까지 이어진다. 이를 통

해 일찌가 모든 일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찌의 부르주아 허위의식과 책임 전가에 급급한 편협한 사고방식은 준구의 친구인 유부남 박달과의 연애로 인해 윤리적 파탄을 맞는다. 박달은 일찌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여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병문안을 간다. 이를 계기로 만남이 지속되면서 박달은 “자제력을 잃고” “처자가 있으면서도 전처는 정식으로 이혼하였다고 일찌를 속”(p.452)이다. 일찌는 박달이 준구의 친구였기에 친구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일찌가 준구를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준구의 사람 됨됨이는 믿으면서도 성급한 감정적 판단에 의해 준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와 헤어지게 된 것이다. 둘은 박달이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약혼하기로 “맹서를 짓고 나날이 밀접한 관계가 깊어”간다. 결국 일찌는 임신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엄마도 알게 된다. 일찌가 결혼하자고 하자 그때서야 박달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감정에 치우쳐 행동한 것을 후회한다. 박달은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을 밝힌 후 무책임하게 종적을 감춰버리고 일찌는 집에서 나와 혼자 아들을 낳고 미혼모가 된다.

일제에 의한 식민자본주의화가 정점에 달했던 40년대 초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발호 속에 자유연애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식 자유연애 지상주의 정서가 상류 지식인층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또한 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상업적 유통경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통속작품이 양산되었다. 이 같은 외형적 근대화 속에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은 퇴폐와 방종으로 흘러 일부계층의 도덕불감증은 극에 달한다.¹⁸⁾ 자유연애는 일본 유학을 경험한 신여성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신여성은 처음엔 미혼인 줄 알고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가

연애감정에 빠진 후 혹은 육체적 관계를 맺거나 동거를 시작한 후 그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⁹⁾ 이러한 시대적인 시류를 작가 이기영은 일찌의 이성적 판단이 배제된 감정적인 연애로 유부남의 아이까지 낳는 윤리적 파탄 행위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일찌는 문명화된 도시에 살고 있는 부르주아 허위 의식의 표상으로, 도시의 대척점에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인 시골 태생인 응주가 도시에서 자립적 인물로 성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그려지고 있다. 그녀는 부르주아 허위의식의 상징으로 시골 출신인 응주와 준구를 경멸하지만 이성적 판단을 배제한 채 자신의 감정에 의존한 빗나간 자유연애로 윤리적 파탄을 맞는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IV. 미래 지향적 가치관과 운명 순응적 가치관의 공존

서울에서 같은 학교 같은 반 친한 친구였던 응주와 일찌의 이분법적 사고는 응주 어머니와 일찌 어머니가 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응주 어머니는 시골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딸 응주가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딸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직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일찌 어머니에게는 딸의 행동에 대해 체념적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먼저 응주 어머니는 비근대적 공간인 봉건적 인습이 점철된 빈곤한 시

18) 윤정현, 『일제하 연애소설의 두 양상』, 『어문집』 87집, 한국어문학회, 2005, p.601.

19) 우종인, 같은 논문, p.71.

꿀 살무지에서 딸인 응주를 위해서 남성인 남편에게 순응하는 전통적 현모 양처로서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보여준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다니고, 선교 부인의 도움으로 딸을 보통학교부터 서울의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만약 어머니의 열성이 없었다면 응주는 봉건적 인습이 잔존해 있는 시골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응주의 동네 친구들은 “그동안에 별써들 시집을 갔네, 밑머누리를 주었네 해서 지금은 하나도 볼수 없었(p.37)”기 때문이다. 응주가 취직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여자라도 돈버리를 잘하고 남과 같이 살수있다는” 어머니의 미래 지향적인 선견지명 덕분이었다. 여기에 시대를 앞선 경제관념과 실리적인 사고방식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딸을 위한 마음은 결혼 문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어머니는 초반에 재취자리이지만 딸이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처갓집의 생활도 책임진다는 부잣집 병태와의 혼담에 솔깃하여 동의한다. 하지만 딸이 취직을 해서 가족들을 서울로 이사시켜 함께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남편에게 결혼 반대의 의사를 피력한다. 즉 딸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존중하고 동조하는 것이다. 이때 딸인 응주가 자신의 계획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먼저 알렸다는 데서 모녀가 상호 신뢰의 관계에 있으며 사고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응주 어머니는 남편이 논과 집을 사주고 생활도 걱정 안하게 해주겠다는 병태의 꾀에 넘어가 ‘모친 위독’이란 거짓 전보로 딸인 응주를 고향으로 유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 길로 밤길을 달려가 병태에게 감금당해 결혼을 강요받고 있던 응주를 구해낸다. 만일 그때 응주 어머니가 응주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응주는 병태에게 무슨 일을 당하였을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응주 어머니의 딸을 위한 행동은 남편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때 남편은 딸을 강제로 병태와 같이 있도록 하기 위해 약을 사러 간다며 나가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응주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응주 어머니는 딸에게서 병태에게 갚을 돈을 준구가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일찌가 응주와 준구 사이를 오해해서 파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구와 “약혼을 했다구”하라며 제안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도, 남들도 더 이상 응주를 함부로 못할 거라고 한다. 어머니는 딸을 강제 결혼 시키려는 아버지와 병태의 온갖 간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제안에 딸인 응주는 준구에게 청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응주 어머니는 딸을 위해 항상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만약 어머니가 없었다면 응주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조혼이나 “아무렇게나 시집”을 갔거나 병태의 간계에 빠져 강제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행동 덕분에 딸인 응주는 취업도, 가족 이사도 그리고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도 성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응주가 궁핍한 시골 생활에서 탈피해 서울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인물로 설 수 있는 배경에는 어머니의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이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응주 어머니를 통해 새로운 모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응주 어머니와 반대로 문명화된 도시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일찌 어머니는 소극적이며 봉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일찌의 모친은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고 안방 아랫목을 떠나지않는 위인이었다. 지금도 혼자 담배를 피우고 누었다가 응주의 목소리를 듣고 이러한 것이었다. (중략) 생활에 부자유가 없는 그는 언제나 마음이 화평할수 있는것같이 보였다.(pp.246-247)

일찌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두어 “언제나 깨끗한 옷을입고 아랫목을 떠나지 않는 위인”이고, “생활에 부자유가 없”어 “마음이 화평”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현실을 개척하는 능동적인 삶보다는 남편이 제공해주는 현실의 풍족함에 안주하는 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남편과 딸의 대화에서 딸의 편을 드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남편이 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 겨울에 다시 가자”는 제안에 딸 일찌는 살무지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안가겠다”고 한다. 이에 일찌 어머니는 “원체 떼대야 못따러 갈것데”(p.258)라며 딸의 편을 든다. 이렇게 딸의 편을 드는 것은 딸의 건강이 염려되어서가 아니라 현재 생활에 안주하려는 소극적인 성향 때문이다.

일찌 어머니의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인 성향은 주어진 운명에 체념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표현되고 있다. 일찌가 백화점에서 준구와 응주가 만나는 것을 보고 둘 사이를 의심하자 당사자인 준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고 말한다. 이에 딸이 화를 내자 “아이구, 모르겠다. 네마음대로 하든지...말든지 하려무나”(p.311)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린다. 그러다 일찌가 유부남인 박달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자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일찌 어머니는 딸을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보다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자신의 삶이 달라지거나 타인과 갈등하기를 바라지 않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성향에 그 원인이 있다. 일찌 어머니는 하인들 보기에 창피해서 일찌더러 따로 나가 살라고 한다. 아이 문제는 출산한 뒤에 “어떻게든지 초치를 대자는” 생각으로 딸이다. 즉 딸이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을 때도 일찌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따로 나가 살게 하여 미혼모로 숨어 사는 인생을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찌 어머니는 딸 일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머니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현신적인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방관자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딸이 유부남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도 딸의 입장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두려워 따로 나가 살게 한다. 이처럼 일찌 어머니는 풍족한 생활에 안주하기 위해 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운명 순응적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상 살펴본 내용처럼 응주 어머니와 일찌 어머니는 딸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응주 어머니의 딸을 위한 실리적인 미래 지향적 태도는 응주가 고난을 극복하고 자립적 여성으로 정립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면, 반대로 일찌 어머니의 소극적이며 체념적인 운명 순응적 태도는 딸이 미혼모로 숨어 살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V. 결론

『생활의 윤리』는 전형적인 통속소설로서 석응주라는 한 여학생을 중심으로 자연친화적 시골인 ‘살무지’와 근대화된 문명의 세계 ‘서울’이라는 두 공간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그리고 있다. 이 두 공간에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만남으로 인한 계급의식의 차이와 오해, 그 결과로 빚어진 남녀관계의 역행적 전개, 식민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자유연애 사상과 황금만능주의 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 구조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별개로 지극히 개인의 사적인 일상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기영 작가의 『생활의 윤리』는 일제에 의해 ‘전향소설’을 강요당하는

당대 상황에서 체제의 주장에 동조하는 ‘제국주의 모성론’을 응주를 통해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가족, 연애 등 일상적 갈등을 통해 계몽담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골 태생인 응주는 자립적 여성상 정립과 준구와의 이성적 자유연애를 통해 전통적인 기존의 결혼제도를 벗어난 새로운 남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 도시 태생인 일찌의 부르주아 허위의식은 박달과의 감정적 사랑으로 ‘윤리적 파탄’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응주 어머니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모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작가로서의 의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기영, 『생활의 윤리』, 성문당, 1944.

2. 논문 및 단행본

김동환, 「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11.

김운식, 『한국현대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p.40.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사, 2004, pp.45-46.

김한식, 『현대 소설과 일상성』, 월인, 2002, p.58.

김홍식, 「일제말기 이기영 문학의 내부망명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7, 2015, p.367.

박현호, 「염상섭과 부르주아지」, 한국학연구 39, 2015, p.17.

우종인, 「이기영 장편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70-78.

윤정현, 「일제하 연애소설의 두 양상」, 『어문집』 87집, 한국어문학회, 2005, p.601.

이기영, 「적막」, 『조광』, 1936.7.

이상갑, 「1930년대 후반기 창작방법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87.

이상갑, 『한국근대문학과 전향문학』, 깊은 샘, 1995, p.222.

이주형, 「일제 강점시대 말기 소설의 현실대응 양상」, 『국어교육연구』 24집, 국어교육학회, 1991, p.10.

Abstract

Dichotomical thinking and the establishment of self-reliant
women's image presented in the 『Ethics of life』

Choi, Jung-nyu

This paper seeks to examine how dichotomous thinking and imagery of independent woman are conveyed through female characters in 『Ethics of Life』 by Lee Ki-young, a work from the early 1940s before Korea's emancipation.

Heroine Eung-joo's rural background and nature-friendly way of thinking have shaped her as a resourceful woman with economic independence and prowess to recruit men into her womanly realm. However, Eung-joo's inability to become an agent of social change and her conformance to Japanese imperialist maternal ideals have earned the novel its stigma as 'transfigurative literature.' Il-zzi, on the other hand, was born in a rich urban household. She was portrayed to be condescending and disdainful of the rural life as guided by her bourgeois pretense. Il-zzi eventually met her moral demise. Her character represents fallacies and moral decadence of the bourgeoisie amidst the rampancy of capitalism and materialism at the time. While Eung-joo's mother helped Eung-joo overcome her difficulties and grow into an autonomous woman with her practical and future-oriented values, it was implied that Il-zzi's mother's had caused Il-zzi' to live in hiding as a single mother with her compliant and passive attitude.

To avoid censorship by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Lee Ki-young did not make direct social commentary on the state of colonized Chosun. Instead, he polarized characters and portrayed healthy and independent woman in a positive light.

Key Word : nature, civilization, dichotomous thinking, independent woman

최중녀

소속 : 경일대학교 교양학과 강사

전자우편 : nuden1201@naver.com

이 논문은 2017년 10월 29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